무문관 수행이 사찰 중흥 이끌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㉒ 도봉산 천축사





도봉산 천축사 전경(사진 왼쪽). 무문관 결사 후 중창불사로 현재 모습을 띄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1964년 육영수 여사의 보시로 건립된 무문관의 모습.

큰 절 폐사를 가슴에 품은 천축사

불교인의 영원한 고향은 인도다.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그리고 교화의 자취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 중국인들은 인도를 천축으로 불렀다. 한국의 스님들 역시 인도를 마음의 고향으로 여겼다. 늘 그곳으로 구법을 가고자 했으나 길이 멀고 험해 생각으로 끝났다. 마음에 연민처럼 아련한 천축! 그곳에 갈 수 없다면 이곳에 세우려 하였다.

도봉산 천축사! 글자 그대로 인도를 상징하고 불교를 상징하는 사찰이다. 천축사의 창건은 신라시대로 추정되지만 사찰의 연혁이 확실하지 않아 사실대로 믿기는 어렵다. 천축사란 이름이 정해진 것은 고려 말로 생각된다. 해동으로 법을 전하러 온 지공은 많은 제자를 두었다. 그 법을 이은 것이 나옹과 무학이다. 세 분의 수행이 청정했던 관계로 지금도 한국불교의 불사에 세 화상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있다. 이곳을 둘러본 지공이 나옹에게 인도의 영축산과 비슷하다 하여 그렇게 불렀다 한다. 구전이지만 나름 타당성이 돋보인다.

천축사의 존재가 확실하게 부각된 것은 밑에 있던 큰 절 영국사의 폐사 이후로 보인다. 배불의 압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조정에서 반대하는 신앙을 소신을 지켜가며 믿을 대중은 없었다. 사원경제가 몰수되면서 한양 주변의 사찰들은 하나씩 폐사되었다. 영국사도 그 흐름을 비켜갈 수 없었다. 사원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질 무렵인 이곳에 도봉서원이 세워졌다.

1953년 양주 목사로 부임한 남언경이 평소 흠모하던 조광조를 기리기 위해 서원 건립을 계획하였다. 1574년 9월 부제학 유희춘 등이 서원의 사액을 청하였다. 선조는 도성과 가깝고 다른 곳과 중첩되는 것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으나 사림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었다. 마침내 '도봉'이라는 사액이 내려졌고 영국사의 땅과 호남의 면세지 100여 결이 지급되었다.

서원 건립의 과정을 지켜본 사부대중들은 가능한 영국사의 유물을 천축사로 옮겼다. 큰 절 목재로 쇠락해진 천축사 당우를 보수하며 불가의 도량이 유가의 서원으로 바뀌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승가의 수행처, 왕실의 기도처

도봉산 천축사는 풍광이 좋아 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숙종 때 문인인 우암 남구명(1661-1719)이 남긴 문집에 자신이 천축사에 올라 하루를 묵으며 느낀 소회를 표현하였다. 조선 후기 학자인 이승원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47년 편집한 우산고시초에서 천축사의 아름다운 경치와 절의 한적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 뒤 활동한 이건창(1852-1898) 역시 천축사에 올라 풍광과 감상을 표현한 시를 그의 문집 명미당집에 전하고 있다.

천축사의 풍광이 좋아 문인들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곳 역시 수행도량이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일찍부터 많은 수행자가 찾아들었다. 그 가운데 한 인물이 혜능(1562-1636)이다. 남씨 집안에서 출생한 스님은 12세 때 응철에게 사미계를 받으며 출가하였다. 8년 동안 내외경전을 두루 배운 뒤 천조를 찾아가 의문점을 물었고, 처구의 지도로 깨달음을 얻은 뒤 전국의 명산대찰을 순례하며 보임을 닦았다. 만년에 문득 지나가는 기러기를 보고 도는 근본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감을 깨닫고 천축사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엄정한 지계와 보시의 행을 닦다 입적하였다.

천축사는 왕실의 안녕을 위한 기도처였다. 도성과 가까웠던 탓에 왕실의 귀의가 남달랐다. 문정왕후가 '화류수목조룡상(樺榴樹木彫龍床)'을 헌납한 사실로 볼 때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도도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때 명성왕후는 왕실을 위해 경산 각 사찰에 많은 시주를 하였다. 이곳 역시 왕실의 안녕을 위한 기도처였다. 1891년 상궁 박씨와 김씨는 명성황후를 위해 기도하며 불화를 시주하였다. 그것이 '비로자나삼신불도'(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92호)이다. 이 불화는 응석이 편수를 맡아 환감, 혜조, 경림, 탄인, 창오 등이 제작하였다.

이곳은 경산지역 화승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비로자나삼신괘불도'(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93호)가 있다. 1858년 하운당 유경이 창엽, 종지, 봉조, 총륜과 함께 제작한 불화이다. 화면에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그리고 석가모니불이 꽉 차게 그려진 괘불이다. 이런 양식은 19세기 서울, 경기 지방에서 유행한 불화로 비슷한 불화로는 흥천사 괘불(1832년), 청계사 괘불(1862년), 불암사 괘불(1895년)이 있다.

현대불교 수행결사를 계승한 무문관

천축사를 현대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으로 만든 이는 정영(1924~2007)이다. 1924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에서 수학하다 1940년 해인사에서 출가하였다. 1953년 정화운동이 일어나자 동산, 효봉, 청담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64년 천축사 주지 소임을 맡은 그는 이곳을 현대불교의 수행결사를 계승한 도량으로 일구고 싶었다.

조선 사원경제 몰락 영향
영국사 폐사되며 부각돼
12년 무문관 수행, 새 기치

그는 일제 강점기 한국불교의 쇠락을 회복하려는 선사들의 결사를 지켜보았다. 광복 후에도 한국불교 상황은 녹녹치 않았다. 3년간 실시된 군정기간 동안 한국불교계는 미국을 통한 서양문물의 유입과 기독교 선교라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친일불교의 척결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여야 하였다.

독립운동 경력을 가졌던 불교계 인물들은 교정혁신을 위해 기존 종단의 간부들을 해임시키고 8인의 위원으로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남한의 승려 60여 명이 참여한 대위원회를 개최하여 새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31본산제를 폐지하는 한편 13도에 교구를 두고 교무원을 신설하였다.

새로운 집행부가 된 교무원은 1946년 8월 모범총림을 시설하여 선, 교, 의식 등으로 도제를 양성하려 하였다. 이 안은 중앙종회의 결의되어 1946년 10월 합천 해인사에 재단법인 가야총림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1월 6일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던 효봉을 조실화상으로 위촉하였다.

송광사 회주로 있던 효봉은 이미 1946년 7월 15일 하안거 해제일에 삼일선원에서 '若未發明大事면 誓不下山'이란 발원과 함께 洞口不出, 午後不食, 長坐不臥, 默言의 청규를 정하여 삼년 결사에 정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보단 한국불교 전체를 생각하고 송광사에서 해인사 퇴설당으로 옮겨왔다. 그의 수행력을 익히 알고 있던 인곡, 순호, 구산, 법흥, 석호, 금담, 혜진 등 사방의 수행자가 모여 대회상을 이루었다. 이후 해인사에서는 사유 토지를 분할하여 재단법인을 만들어 한국불교의 혜명상속과 우리 승단의 청규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납자들이 운집하자 총림의 규약을 제정하면서 결사는 한층 더 공고히 진행되었다.

이런 총림과 달리 성철은 개인적인 결사를 주도하였다. 1947년 문경 희양산 봉암사에서 선종 본래의 종풍을 회복하고 옛 총림의 법도를 이 땅에 되살리고자 결사를 주도하였다. 이곳에 뜻을 같이하는 도반과 젊은 수좌들이 운집하였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청담, 향곡, 자운, 월산, 혜암, 법전 등으로 그들은 해방 후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교단의 초석을 세웠다. 이들에 의해 교학연찬, 참선수행, 대중포교라고 하는 근본적 의미를 상실한 교단과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기복적 형식의 의례 그리고 한국불교 속에 스며든 일본불교의 수행풍토가 시정될 수 있었다.

효봉과 성철의 수행 모두 6·25 전쟁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결사운동이었다. 지금까지의 승가생활을 크게 변화시켜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대불교의 수행결사를 지켜본 천축사 주지 정영은 아쉽게 막을 내린 수행결사를 복원하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워진 것이 천축사 무문관이었다. 이곳은 1964년 육영수 여사의 보시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다음해 12월 27일 낙성된 무문관에 제선, 홍근, 혜원, 관응 등 모두 22명의 납자가 6년 결사에 참여하였다.

모두가 부처님과 같이 6년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 시작은 쉬웠으나 마지막까지 남기는 어려웠다.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자신의 의식을 옥죄었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버린 바람과 빗방울 소리 하나가 정답게 느껴졌다. 모든 인연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었지만 단절은 또 다른 번뇌를 만든다. 세상과 담을 쌓으면 평상시 관심 없던 일들도 스멀스멀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번민의 씨앗이 되었다.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어서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싸움에서 패배한 수행자는 하나 둘 그곳을 나갔다. 72년 6년 일념정진을 끝낸 관응 석영현구 세 스님과 회향했다.

1972년 4월 28일 6년 결사를 마치고 회향한 수행자는 관응, 현구, 석영이었으며, 뒤에 합류해 4년을 마친 지효 경산 등 5명이었다. 중도에서 그만둔 17명의 수행자의 근기가 약한 것이 아니라 5명의 수행자 근기가 높았던 것이다. 세상과 등지고 6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평범한 근기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이 증명되었다.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해 11월 16일 시작된 제2차 결사는 성운, 무불, 원공 등 5명의 납자가 입제하였다. 제1차 결사를 통해 무문관 수행의 어려움이 알려졌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었다. 그래서 정예의 수행자만이 온 탓일까 이들은 1978년 11월 10일 6년의 수행을 마치고 회향하였다. 이들을 끝으로 그 후 3차 결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1979년 천축사 무문관은 폐쇄되었다.

두 번 12년에 걸쳐 행해진 무문관 수행은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불교의 변질에도 지속된 수행전통과 광복 이후 승풍을 회복하려는 움직임과 사상적 맥락이 같기 때문이다.

이곳이 2011년 10월 폐관 30여 년 만에 복원되었다. 예전과 달리 비록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치열한 수행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현대 불교수행의 상징성이 복원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